

# TATTOO의 패션성에 관한 연구

정은숙\* · 김향수\*\*

명지대학교 예체능대학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 산업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 A Study on the Tattoo Fashion

Eun-Sook Chung\* · Hyang-Soo Kim\*\*

Associated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Myongji University\*

Master's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Myongji University\*\*

(2003. 1. 17 투고)

### ABSTRACT

I think that apparel attaches importance to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visual expression in one ornamental culture in which it is clothed on human body, whereas a tattoo attaches more importance to part of the expression of one's own identity in the same context. However, modern tattooing act was highlighted only as an element of act which was negative in the purpose and the degree of taste or which assumed the grotesque meaning of a particular group, away from pure concepts such as simple ornament or an amulet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world. A tattoo is gradually being seen as one of avant-garde methods of art again these days, and TATTOO LOOK is being popularized as street fashion as an effective method of one's own satisfied desires and peculiar expression of personality. I have got the following conclusions as the result of having studied on a tattoo which is establishing itself as another plastic art that is matchable with the fashion of dress and its ornaments in which human incessant instinctive desire for the ornament of body has been beyond nostalgia for the past and simple ornament which were pure in up-to-date modern society.

First, a tattoo is of personality. In that it solidifies one's own personality of another side by being transformed, one's own attraction can be transferred to a fashion tattoo with which one can emit one's own personality.

Secondly, a tattoo is fashion. As a new body ornament called transformation by a tattoo was emerging, the fashionableness owned by a tattoo had in its area ample room for the fashionableness with which it can coexist with the culture of dress and its ornaments.

Thirdly, a tattoo is popularized. TATTOO LOOK in which one's own satisfied desires and the expression of personality are properly applied is being recently transmitted easily everywhere in the world and popularized as street fashion.

Fourthly, a tattoo is not depraved art. It's because of the point that a tattoo which had been recognized only as a decadent expression in which avant-garde elements of unknown nationality appeared mixed showed the possibility that it could establish itself as fashion art. If we go on studying and complementing the problems of individual sides about a tattoo also in the future, the infinite fashionableness for the elements called personality, sense and emotion owned by a tattoo suggested ample possibility as future industry to be highlighted.

Key Words: Tattoo(문신), Tattoo look(타투룩), Fashion(패션)

## I. 서론

인류학자 플로셔 바르텔스(Flusher Bartels)는 “문신의 관습은 의복의 이전 단계다”라고 주장했다<sup>1)</sup>. 문신은 지금의 의복으로 동일시화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나체를 감추거나, 무엇보다도 장식에 목적이 있었다. 의상이 인체에 입혀지는 하나의 장식문화에서 시각적 표현의 만족도에 중점을 둔 거라면, 문신은 같은 맥락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표현의 일환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내적인 욕구 또는 자신의 이상가치를 신체에 표현한다는 한정적인 작법으로서, 영구적이었던 지반영구적으로 피부에 표현되는 상처 또는 색소침착의 잔존시기에 따라 구별되며, 이러한 피부의 변형이라는 조건을 뛰어넘어서 까지 행하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참여하는 예술행위<sup>2)</sup>이다. 그러나 현대의 문신행위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단순한 장식 또는 부적 등의 순수개념을 떠나, 그 목적과 기호도가 부정적이거나,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특정 그룹군의 열기적인 의미를 띤 행위요소로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형 인식되고 장식적인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문신 자체만을 볼 때, 인간으로서 뛰어넘을 수 없는 영적이고 필연의 몸짓 같은 하나의 패션예술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으며, 보디아트라는 하나의 장을 만든다면 괄목할만한 원조 격으로 대접받아 마땅한 부분이 문신이다.

이에 따라, 사람의 몸에 행해졌던 문신의 의미나 행위, 문양 등에 관한 제반연구로서 패션장르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반면, 현재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

잡혀있는 일부특정 그룹의 특수한 동기목적의 부정적 시각이나 선입견을 내포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대중이 기꺼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패션으로서의 문신의 예술성을 밝히고자 한다.

### 1.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는, 문신이 원시시대의 의상을 대신한 하나의 표현이었다면, 앞으로의 문신은 패션성을 띤 하나의 장식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르로서 음지를 벗어나 아름답게 표현되는 방법과 기술 분야의 개발 등으로 대중이 누구나 안전하고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문화로서 널리 인용되고, 각종 디자인아트 분야로의 재활용에 목적이 있다. 둘째로, 문신이라는 작법의 한계가 점차 현대 사회의 인식 변화에 따른 기호도에 변수가 생기면서 예술적 가치조차 같이 변색 또는 퇴색되고 있음에, 패션학적인 견지에서 본 보디아트의 중요한 근원적 의의를 살려 패션학과 접목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공통적인 유사근거나 방법론이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대두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신의 근원과 역사 그리고 기타 필요한 제반 자료를 통하여 패션학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그 연관성을 밝혀 재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우선 문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의식의 견해를 짚어보고자 문신에 관여된 선연구학술자료를 토대로, 문신의 용어정의, 기타 역사적 발생 및 배경들을 각나라별로 문헌에 따라 나누어보고, 예술과 패션학적인 견지에서 보는 문신의

영역은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에 대해 논하고자 문신의 종류와 문양의 각 의미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자료로는 각종 학술자료, 인터넷, 기타 잡지 등으로서, TATTOO가 지니는 본질불변의 미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현대복식에 응용된 TATTOO의 미적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 이후에서 2002년까지의 각종 컬렉션중 특히 최근 21세기에 들어서 행해진 컬렉션을 중심으로 해당사진에서의 문양을 발췌 분석하였고, 또한 근간의 젊은이들이 표방하고 싶어 하는 무언의 메시지들이 저항패션으로서 TATTOO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자해심리를 자극하였는지 선연구자료및 인터넷 검색등을 토대로 다루어 보았다.

## II. TATTOO의 역사와 사회적 인식

### 1. TATTOO의 용어정의

문신의 개념정의를 위하여 한자권, 영어권의 어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신이란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몸에 새긴 글씨'라는 뜻이다. 즉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이 아닌 '글씨'가 문신의 시초이다<sup>3)</sup>. 문신은 살갓에 상처를 내고 물감이나 먹물을 사용하여 글씨나 그림 또는 무늬를 새겨 넣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몸에 치장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먹을 사용한다고 해서 입묵이라 불려졌고, 글씨나 문양을 새겨 넣는다고 해서 자자 혹은 자문이라 하였다<sup>4)</sup>.

이에 비해 문신을 뜻하는 영어 '타투(TATTOO)'는 원래 폴리네시아어로 '옳다' 또는 '미술 법에 맞는다'라는 의미의 '타타우(TATAU)'에서 파생한 말이다. 이 폴리네시아어가 영국에 들어가서 'TATOW' 혹은 'TATTOO'로 되었다. 이 말은 남태평양을 여행하고 돌아온 제임스 쿡 선장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1769년 쿡선장이 한 신문에서 타히티주민들을 묘사한 내용을 보면 "원주민들은 몸에 문신(TATTOO)을 하며, 이것은 피부 밑에 검

은색을 새겨 넣는 영구적인 방식이다. 남자들은 새 또는 개의 문양을 문신하고, 여자들은 대체로 손가락과 발가락의 Y관절위에 Z모양의 문신을 하고 있다. 이 밖의 장식으로 귀고리가 있으며 주로 한쪽 귀에만 착용한다." 이와 같이 남태평양이나 서양의 문신은 '글씨가 아닌 그림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또한,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를 얼굴에 대고 작은 방망이를 이용하여 그 도구를 때리는 기술을 뜻하는 유사한 의미의 타히티어 TATU와 아랍어 DAQQ 두개의 단어는 어원이 TATUS 즉 예술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폴리네시아 군도의 타히티언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도 나와 있다<sup>6)</sup>. 이와 같이 한자 권은 글씨위주로, 영어권은 그림위주로 문신이 표현되어왔다는점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2. 인종적 분류에 따른 TATTOO의 형태 및 의미

#### 1) 백인종지역

고대 유럽인은 문신을 부적처럼 여기는 사례가 많았고, 문신을 하는 이들은 대우를 상당히 높게 받았다. 주술적인 문신의 동기가 많았고 채색의 형태가 많았지만 피부가 검어서 발색이 힘든 종족은 상흔을 입혀 변형된 돌기 문양 등으로 문신의 아름다움을 표현코자 하였다. 특히 마오리족의 문신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문양이 많았으며 문양이 뜻하는 내용도 심층 연구과제다. 백인종지역의 문신은 원주민의 문신들이 도입되었고, 처음엔 경시되었으나 고급귀족층에서 행해지는 문신으로 자리 잡았다. 헤나는 본래 녹색을 띠고 있다가 건조되면 진한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부의 옷과 베일, 앉는 쿠션과 매트리스에 이르기까지 녹색을 사용하는 헤나의 밤을 '녹색의밤'이라고도 부른다.

폴리네시아계인 마오리족의 문양은 세계 대부분의 종족들의 전통 문신법과는 다르게 주된 선을 빼로 된 소형조각칼로 피부를 깊숙이 베어서 문신하여 가장 정교하고 섬세하였다. <그림 1>의 설명

<표 1> 백인종 거주지역의 문신형태비교도

	백인종 지역	문신의 형태	문신의 의미	
			홍분의 목적	기타 영웅심
시대 및 지역 별 구분	고대그리스인 에르투리아인	전쟁시 전신 채색	적색	기와 영웅심
			아라베스크모양	적을 위협
			부적	
	아메리카 19세기 초 인디언 수우족	전신 채색	적색	싸움의 색
			검은색	사랑의 색(여성안면채색)
			황색이나 녹색	슬픔 또는 죽음의 의미
			기쁨의 의미	
	남태평양 말케사스섬 주민	성숙시 완전한 형태	푸른문신(손)	여성취사입무 부여(밀가루반죽)
			연륜과 부의 시사	
	사모아제도의 남성	복잡기하학 무늬의 상처(하복부)	남성의 인정(16세 이후)	
			생명의 기 기원 (녹색상상 의식)	
	아랍 에미리트인	손과발가락위 태양, 달, 풀잎의 표현 (단순한 기하학적 도안)	결혼자격의 취득	
경외의 의미				
식량 확보에 대한 열망의 뜻				
장식의 의미				
토테미즘(에너지의 의미)				
남아메리카 아마존일대의 원시종족인 야노마미족	해(얼굴 및 전신)	토테미즘(에너지의 의미)		
		불사의 의미		
남태평양 군도의 원주민	물고기, 원숭이(얼굴 및 전신)	토테미즘(에너지의 의미)		
		불사의 의미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	전신 그림(숫검맹이 색소)	토테미즘(에너지의 의미)		
		불사의 의미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복잡한 문신의 도포 (문신최다종족)	토테미즘(에너지의 의미)		
		불사의 의미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	꼭선위주(나선문양,소용돌이형)	토테미즘(에너지의 의미)		
		불사의 의미		



<그림 1> illustres. p.77. <그림 2> illustres. p.73.

다는 상흔 및 변형이 주로 행해진 문신의 행태였다.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성적인 구분으로 거친 삶에서 생존하기 위한 삶의 존재인 남자의 용맹성을 보여주는 문신이 많다. 아프리카 원주민사회에서는 채찍과 상처로 흉터 내어 몸에 돌기를 솟게 만들어 인내의 상징으로 남성에 대한 복종, 충성의 농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으로, 남성들의 얼굴에 새겨진 문신은 코의 양쪽에 배치된 나선형의 커다란 주된 선과 미간에서 이마 쪽으로 퍼져나가는 꼭선위주로 소용돌이, 나선문양이 발견되는데 이는 그들에게 내려오는 토테미즘으로 에너지를 뜻하며 불사의 의미가 있다. 또한 <그림 2>는 현대까지도 내려오는 의미의 문양으로서<sup>78)</sup>, 죽어서도 생명의 땅으로 갈수 있는 하나의 부적처럼 얼굴, 어깨, 엉덩이 등에 새긴다는 것이다.

2) 흑인종지역

대부분의 검은피부인종은 채색도 했지만 그것보

3) 황인종지역

아시아권에 들어서면 한자권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문신은 그림보다는 글씨위주가 상징적으로 많았는데 현재는 채색이 상당히 발달되어있다. 폴리네시아나 일본문신의 영향으로 아메리카와 유럽 쪽에 문신이 성했다는 것만 보아도 아시아권의 채색이 훨씬 정교했음을 시사한다. 아시아권에서 훨씬 많은 용도로 쓰인 것은 범죄의 낙인 이었는데, 현대에 이르러 일본의 폭력조직이라는 소위 야쿠자들의 의식행위인 문신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표 2> 흑인종 거주지역의 문신행태비교도

	흑인종 지역	그림의 형태	문신의 의미
지역별 구분	콩고의 바야카족	적색 채색(이마)	혼령의 복수예방
	모잠비크의 통가족	양눈썹 사이 들소표정의 문신(눈살을 찌푸릴 때)	성난 들소의 혼백방어
	서부지역의 플라니족여인	안면채색	악령과 병으로부터의 보호
	브라질의 캐야포인디언	붉은 채색 (얼굴주위, 신체말단)	힘, 건강, 민첩성의 상징
		검은 채색(몸통)	집단구성원간의 일체감 상징
아프리카 남서부지역의 아오원족	사선 무늬의 상처 (생후8일의 아기 왼쪽뺨)	부적합한 혼령으로 인한 신생아사망 예방의부적의미, 사회구성원자격획득의 표시	

중국고대 문헌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의 삼한시대에도 문신의 풍습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근원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지지만 처음엔 행운을 기원하는 문신의 행위가 천박스럽게 인식되어 단절되었으나 고려시대에 이르러 문신행이라는 형벌수단으로 구한말까지 명맥을 이었다 조선초기에는 형벌정책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일부 양반들은 자신들이 거느린 종들에게 문신을 새겨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낙인으로 형벌의 징표로 분류한다. 가장 가혹한 형으로써 특기할만한 것은 자자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목형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으며, 얼굴에 글자를 새긴다는 점에서 천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노예제 5형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로 간주되었고 한번 받으면 사람구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교적 교화이념에 위배되는 형벌이었다. 그래서 한문제가 경형을 폐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문신을 하는 동기중의 하나로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수단으로 문신을 한 예도 있었다.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마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리는 등 문신의 일환이었고, 한 상민들의 계층에서는 사랑을 약속한 남녀끼리 문신을 하거나 젊은이들끼리 혹은 형제결의의 약속으로 변치 말자는 표시로 팔에다 문신을 하였다<sup>9)10)</sup>.

<표 3> 황인종 거주지역의 문신행태비교도

	황인종 지역	문신의 형태	문신의 의미
시대 및 지역별 구분	동아시아지역	먹물로 '글씨' 입묵(신체일부)	글씨의 의미 상징
	일본의 아이누족	여성입술 푸른색의 콧수염모양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까지)	결혼여부의 상징, 남편에 대한 충절 및 봉사의 의미.
		대만의 고산족	턱밑 한가닥 파란색 문신,치아 검은 염색 (남자결혼3-4년후)
	중국 상나라와 주나라 사람들	얼굴 세가닥 방사선문양(여자)	살림솜씨 및 출산능력,베짜는 솜씨의 과시
		죽은 자의 가슴에 붉은문신	영생불멸의 의미, 죽음의 상징적 의식
	기원전 12세기경의 태백과 우중	전신 회색빛 채색	살아있으되, 이미 영혼이 빠져나갔음을 의미
	인도의 나가족	나뭇조각으로 밀그림을 그린후 그 위에 식물의 가시로 만든 도구로 두들겨 채색 (발,턱, 가슴, 어깨순)	장식목적
인도의 콘트족		유연, 숯, 향료가루를 피마자기름에 개어 불에 태워 나온 검은 재를 염료로 사용	혼전여인의 구별

4) 한국의 문신

우리나라는 장식의 의미보다는 전염병 등을 예방하는 부적의 의미, 또는 결속의 의표로서, 그리고 낙인 및 형벌의 징표로서 사용된 것이 두드러지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의지의 표시로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

3. TATTOO의 개념

문신의 관습은 동아시아나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만 유행한 것이 아니며, 거의 모든 민족에게서 나타났다. 앞에서 다룬 문신의 배경을 참고로 다음과 같이 긍정적 개념과 부정적 개념으로 나누어 정리

<표 4> 한국 지역 및 신분, 형명, 시대별 문신행태비교도

	구 별	문 신 의 형 태	문 신 의 의 미
지 역	강원도산간지방	이마에 붉은 동그라미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평안북도	임산부가 난산시 발바닥에 天(천)'자 입묵	
	제주도	이마와 콧등에 술밑검맹이칠 (갓난아기의 첫 나들이때)	
신 분	상민계층 사랑남녀(연비)	은밀한 부위 또는 팔뚝에 글자 또는 점등 입묵	결속의 의표 시신구별목적의 표식
	젊은이들		
	전장에 나가는 남편의 등		
형 명	양반들이 거느린 종	마을이나 성씨를 문신(낙동이노, 제동박비, 백노, 홍비등)	낙인의 용도(도주방지용)
	묵형(자자형)	죄질에 따라 도자 또는 다양한 문자 자자김(이마 또는 팔뚝)	형벌의 징표 (창피 및 구별의 용도)
	죄질이 나쁜 자	경이나 노 또는 비(이마 또는 볼)자자.	
	1)도관전	관의 물자나 돈을 훔친 자	
	2)재주마	소나 말을 도살한자	
	3)와주	장물아비	
시 대	경(고려시대)	역자 경 첩(도망친 궁녀 또는 전과자의 이마)	
	자자(조선시대)	초범: 오른팔에 재범: 왼팔에 도자문신	
	연산군시대	노자 또는 노자 경(도주남노비의 왼뺨) 비자 또는 도비 경(도주여자노비의 오른뺨)	
현	조직폭력범	고통스런 문신의 과징이수	

이상과 같이 문신의 유래와 전반적인 고증 등을 통하여 본 세 가지 피부 색깔 군에 따른 지역별 문신 및 우리나라의 문신의 발생배경과 변천을 보았을 때, 공통점은 문신의 동기가 주술적이고 종족의 표시, 신분의 상징, 의식이나 신체보호행위, 예술적 장식이라는 관점에서는 거의가 비슷하였으며 차이점은 각 지역 군별로 문신의 방법에 있어, 채색, 상흔, 파괴, 변형중 어느 쪽을 더 선호했는가였다. 또한 정서적 차원에서의 차이는 시대의 변화, 또는 민족의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같은 부정적인 시각의 일환인 범법자들의 징벌표시로 사용되었던 문신이 아시아권이 훨씬 더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발달되어 있어 문화와 의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임을 증명하여주었다

하였다.

1) 긍정적인 개념

장식개념의 문신은 부적 또는 효험이 있는 확실한 마력의 표시로서 그려졌는데 무사고의 기원과 소원성취가 주목적이었으며, 질병에 대한 치료지식이 부족하고 전투와 살인이 횡행하는, 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기댈곳은 초자연적인 힘뿐이 없는 지역에서 행해졌다<sup>11)</sup>.

또한 문신은 같은 부족의 구성원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문신으로 계급 또는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어 마치 오늘날 군대 또는 경찰이 의복에 계급장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시 민족 사이에서 행해지는 공동체 확인으로서의 문신은 의복을 대신하여 생긴 관습이었다. 어째서

문신이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획득을 상징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해답은 인류학자 빅토리아 에빈의 보고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뉴기니 로로족들은 그들의 몸에 넓게 문신을 하였고, 문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요리하지 않은 고기에 비유하면서 '날것(raw:生)'이라 불렀다. 레비스트로스는 문명의 과정과 자연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인내에 초점을 맞추어, 문신을 하기위해서는 고통스런 과정을 참아야하는 것이 필수로 불에 조리된 고기는 고통을 이겨낸 육체로 해석<sup>12)</sup>하여 구성원의 자격획득의 상징을 사회적 개체와 생물적 개체와의 차이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문신은 행운, 공동체 확인과 신분과시를 위한 표현이 되었으며, 문신자체가 종교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 것도 있었고, 종족의 집단 의식을 상징하는 의미도 위와 같이 볼 수 있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문신은 마야, 잉카 그리고 아즈텍 문명동안 종교적 의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유럽에서의 문신에 관한 흔적은 고대 영국의 이베리아인 스코틀랜드의 픽트인들이 문신을 아주 자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스 인과 게르만족들은 문신을 비밀스럽게 이용한 것으로 보였다<sup>13)</sup>. 현대에 들어서의 문신은 종교적 의미나 형벌적 의미보다 개인적인 장식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부정적인 개념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옛날 죄수의 표시로서 범죄자, 노예, 수형자에게 문신을 강제로 시킨 점으로서, 이렇게 문신이 범죄자의 낙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음은 목인할 수 없는 사항이며, 현대에 들어서는 마치 폭력범의 과시 물처럼 애용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문신행위가 미학적 시야로 넘어가는데 걸림돌 작용을 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고대 로마인들은 범죄자 또는 죄수와 노예들에게 문신을 새겼으며 그리스도교 출현이후 유럽에서는 문신행위를 금했기 때문에 문신이 사라지는 듯 했으나 동부 유럽에서는 여전히 시행하였고 중동지역과 그 밖의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계속해 행해져 왔다고 한다.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유형자에게 문신을 강제로 시켜 낙인으로 사용하였고 영국 해군에서는 1869년까지 도망범과 나쁜 성격의 소유자에게, 미국에서도 죄인들에게, 나치의 캠프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표시로서 사용되었으며<sup>14)</sup>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기에 범죄자들에게 대한 형벌로 사용된 기록이 있다. 19세기 말에는 영국의 상류사회에서도 문신이 잠시나마 유행했으며, 20세기 초에는 노상강도나 오토바이 갱들이 문신을 해 그들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와의 관계 때문에 문신을 하는 풍습은 없었으나 군인이나 선원들 사이에서 문신이 유행하기도하였다. 또한 유색인종사이에서 자랑스러운 과시 물로 통했던 문신이 비교적 밝은 피부를 지녔던 인종사이에서는 경멸의 표시로 사용되었다는 예로 보아, 피부가 검은 인종이나 중국인에게 문신이 드물었다는 평가<sup>15)</sup>는 오히려 채색에서 상흔까지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비교가 되는 해석이다. 근래에 와서 이러한 옛날 죄수의 표시가 현대 폭력범의 과시 물인 듯한 행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범죄자, 수형자등에서 문신을 새긴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집단 구성원이나 성격장애자들이 새기는 경우가 많다고 단정되었다. 또한, 이처럼 문신이 대개 불 건전성, 범죄성향, 반사회적 성향 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새기고 있어서 문신은 인격 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거론되고 있기도 하며, 충동적이며 적응이 곤란하고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가정하여 문신이 사회정신학적 측면으로 연구가 되기도 하였다. 특기할 것은 어떤 행정학적인 연구 자료에는 문신자체의 용어해설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sup>16)</sup>."라고 정의할 만큼 부정적이고 주관적 선입견이 강한 정의를 나타낸 자료도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케 해줄 수밖에 없던 이 문신의 표식은 연비라는 것에서 남득이 간다.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는 연비문신이 부작용을 낳아 순조때 적혀진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내용은 특히 우리 한국에서 왜 더 천시하고 금기시 되었는지 사회적 정서상 수궁이가는 특기

할만한 내용이었다. 간단히 정의된 부분만 명기하면, “…….일러 연비라 하는데 이로써 평생불망의 의로 삼는다. 이 모두 악습인 것이다.”<sup>17)</sup>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문신이 부정적 의미로 활용되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오욕의 증거로 정착되어버린 불행한 예였다. 중국인들은 문신의 기술을 야만적인 표시로 생각했고 이 때문에 오로지 형벌로만 사용했으며, 일본의 경우는 6세기경 통치자들은 석방자들의 팔에 문신을 하여 범죄자들과 석방자들을 구별하였고, 17세기에는 장식용 문신이 하층 계급과 야쿠자들을 중심으로 대중화되어 범죄자들은 그들의 조직문신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커다란 장식용 문신을 활용하였고, 이러한 장식용 문신의 대중화는 일본에서 문신이 범죄단체와 함께 널리 유포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고려시대이래의 형벌의 수단으로 쓰였고, 근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문신문화가 하층문화의 한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현대에 들어 월남전쟁을 전후해서는 파월된 장병들 사이에 의리 단결의 표시로 부대기호나 하트모양의 문신을 시술하는 유행이 일어났으며, 경제발전이후 이은 급격한 산업화 이후 발생한 불량배들이 일본인들의 문신문화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여 장미, 용, 사이코마데(최후의 그날까지)등을 새기곤 하여<sup>18)</sup> 하층문화, 또는 범죄환경의 한 부류로서 인식되는 경향도 있었다.

#### 4. TATTOO의 표현방법

그 옛날 문신은 피부를 절개하거나 화상을 입힌 다음 주로 카본 등을 이용한 다양한 색소를 그 상처에 문지름으로써 문신을 얻었다. 그 다음은 뼈나 칩조각, 나무조각등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현대에는 바늘을 사용하여 보다 정교한 문신을 얻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전자 침을 이용 다양한 무늬와 화려한 색상의 문신을 자유자재로 새길 수 있게 되었다<sup>19)</sup>.

문신은 크게 나누어 adventitious(traumatic), medical, 그리고 decorative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데코라티브 따두

즉 장식문신은 전문가에 의한 것과 비전문가에 의한 것으로 또 나누게 된다.

첫째로 문신의 종류에는 문신의 시술법에 따른 종류가 있고 보존기함에 따른 종류가 있으며 작법과 문양에 따라 종류는 여러 가지로 대별된다. 이에 따라 현대패션에서 쉽게 시술되는 반영구문신과 헤나문신, 그리고 일회용 스티커 등이 미용 또는 패션문신에 해당된다. 문신의 방법에 있어서 피부색에 따라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피부색이 짙은 흑인들은 상흔(傷痕) 또는 난자(亂刺)의 방법을 이용하고, 피부색이 옅은 백인이나 황인종에서는 색소(色素)를 사용하는 고유의 문신이 행해진다. 반흔(癩痕)문신은 상흔문신의 하나로, 살을 베어 흠집을 낸 다음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대로 두면 우묵한 직선의 흉터가 생기는 것을 일컫는다.

##### 1) 반영구 문신

문신은 피부에 바늘이나 그와 유사한 도구를 이용해 진피에 색소를 주입하여 문양을 만드는 것으로 최근에는 미용적인 면에까지 도입이 되면서 점차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다<sup>20)</sup>. 반영구 문신은 잔존기한의 반영구성으로 원하는 기간만큼으로 색소와 바늘의 깊이를 정해서 시술하는데 이것은 영구적인 문신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 때문에 보다 아트문신은 반영구문신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문양의 도입이 시급하다. 문신에 사용되는 물질은 암청색을 내는 carbon, 적색을 내는 mercuric sylphide, 연한 청색을 내는 cobaltous aluminate, 녹색을 내는 chromic oxide, 혹은 chromium sesquioxide, 황색을 내는 cadmium sylphide 및 갈색을 내는 iron oxides등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문신전문가에 대한 문헌보고는 없으나 외국의 문신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문신은 색이 화려하고 다양한데 반해 교도소나 흔히 청소년기에 작성되는 비전문가에 의한 문신은 단일한 색상<sup>21)22)</sup>의 조잡한 무늬로 나타난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문신은 문신물질의 침착된 깊이가 비교적 일정하게 않으며 문신의 선이 선명한 반면에 비전문가에 의한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sup>23)</sup>. 흔히 음지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색은 단순한 푸른빛이



도는 염료이다. 피부문신의 치료 시는 문신의 색깔, 문신의 재료와 문신의 농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요즘 레이저 치료로 흔적을 지우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며 문신색채에 따른 laser의 선택이 다르다. 청색과 흑색문신에 큐스위치드 루비 레이저와 알렉산드리트 레이저는 녹색문신에도 효과적<sup>24)</sup>인 반면 홍색과 황색 문신에는 효과가 없다. 한국인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흑색이나 청색계통의 문신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큐스위치드 루비레이저에 매우 효과적으로 반응한다<sup>25)</sup>.

## 2) 미용문신

최근 문신에 대한 동향으로서, 외국의 경우지만 성적자극을 위해 연청색의 아주 작은 문신을 얼굴 한쪽 구석이나 턱밑, 둔부 또는 손가락에 새겨 색정적 의미를 풍기는 동시에 하나의 매력 포인트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구나 일부 직업여성의 경우 환각제를 상징하는 H, M등 문자의 INITIAL을 얼굴 또는 둔부에 새기기도 한다. 또한 일부 치과에서는 치아에 문신을 새기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일시적인 문신, 문지르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문신, 입체 감각을 느끼게 하는 문신등 문신행위 자체가 다양해졌으며 많은 발달이 이루어졌다. 그런 반면 의학적으로도 이용되는 문신 또한 많은 발달이 있어왔는데 성형외과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각종문신이 개발되었다. 안검문신이라던가 다이어닝, 라쉬라이닝 그리고 유방 수술 후 유두 재건 술에 응용되는 문신등 많은 경우에 쓰이고 있다<sup>26)</sup>.

또한 여성의 경우 눈썹을 그리는 대신 눈썹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눈썹을 그리는 일이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미용실에서 눈썹처럼 문신을 하기도 하는데 화장과 복장의 변화에 따른 맞추어 눈썹의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는 자연스런 화장술에 의거한 문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이 인위적 문신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기원전 그리스 시대로부터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으나 아직 완전한 제거 방법은 발견되지 못하였다<sup>27)</sup>. 외국과 비교해 국내에는 전문적인 시술자가 없는 상황에서 주변사람들에 의해 시술된 아

마추어 TATTOO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레이저에 의한 문신제거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1984년 경부터 눈썹이나 안검문신이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대부분의 문신시술이 미용실이나 가정집 헬스크럽등에서 상품화된 금속성분의 문신재료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8)29)</sup>. 눈썹이나 속눈썹 심지어는 입술에까지 미용문신술의 발달로 인한 문신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의지, 젊음을 유지하려는 수단 등으로 피부를 손상시키고 고통까지 감내하며 행한 문신이 미적인 요구의 변화로 문신의 교정 혹은 제거코자 할 때 원만한 기술이 받쳐주어야만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3) 헤나와 스티커

인도와 이집트에서 결혼 의식의 하나로 내려온 헤나는 살갓 염색을 말하는데, 최근 문신 대용(代用)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문신을 받을 용기는 없지만 뽀뽀를 몸에 그려 매력을 강조하고 싶을 때 '지워지는 문신'인 헤나를 한다. 헤나에도 내추럴 칼라인 갈색과 흑색이 있으며, 칼라를 섞어 화학약품화 시킨 헤나는 플라노 아트라고 하여 헤나보다는 조금 용이한 작법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문양의 잔존기간은 2주에서 한달정도이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보디아트의 일종으로 자리 잡혀 가고 있는 패션추세이다. 또한, 헤나와 함께 젊은층에서 유행하는 일회용 문신스티커가 있으며, 쉽게 부착하는 스톤이나 큐빅, 또는 빈디패션도 문신에 관여된 보조패션이라고 할 수 있겠다.

#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TATTOO

## 1. 신체에 직접 표현한 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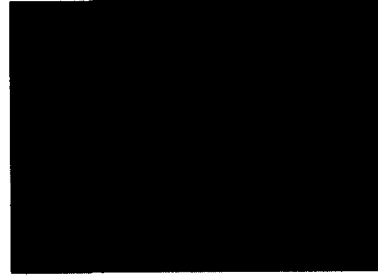
우리전래의 문신은 글씨를 새기는 것이었으나, 요즘에는 글씨가 아닌 문양을 즐긴다. 이점은 디자인이란 것이 발달된 서양의 영향이 컸음이라고 본

다. 문신의 문양에 있어선 다양했지만, 부족이나 집단의 표시인 트라이벌류<그림3>에서 보듯이 디자인의 변화 및 다양성이 아름답게 표현되어있고, 한국문신의 경우, 호랑이, 용등은 고분벽화나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좌청룡 우백호는 풍수사상을 통하여 민간 생활에 파고든 못된 귀신을 쫓는 사상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여러가지 동물 즉, 호랑이, 용, 독수리, 뱀, 전갈<그림4> 또는 해골표시와 여러 군대 마크 등은 거칠고 남성다워 보이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같은 공격성 내지 열등감을 위장하기 위한 phallic symbol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주 접하는 것으로 식물류를 단아하게 새겨 신체의 작은 부위에 작게 새기는 것도 향간에 유행처럼 즐기고 있다. 또한 자주 접하던 문신의 문양중 무궁화와 태극기문양은 국화와 국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도의 표현이며, 장미<그림 5>를 비롯한 꽃그림이 다수 나타난 점은 문신자의 강한 여성 취향 성을 볼 수 있다. 나비문신의 증가는 동료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기에서 느껴지는 유행성 모방의 한동기로 생각된다.<sup>30)</sup>



<그림 3> TATTOOS#7. p.2 <그림 4> TATTOOS#7. p.11 <그림 5> TATTOOS #7. p.39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전신의 TATTOO행위는 일본의 이레즈머풍의 그림이라던가 엽기적 인물화 <그림 6>등 거의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문신이며, 현대 유럽에서 보이는 환타지아트 스타일류가 디자인으로 흔히 택해지고 있다. 특기할 사항으로, <그림 7>처럼 문신이 성적인 상징으로 쓰였다는 것



<그림 6> TATTOOS#5. p.28



<그림 7> 1000 TATTOOS. pp.51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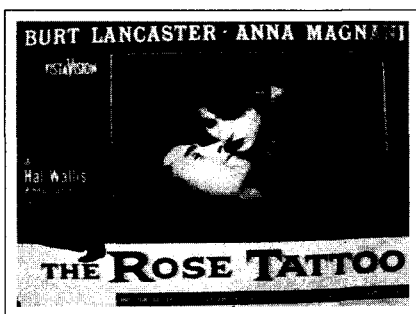
역시 재미있고 팔목한 사항이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 같은 죽음과 살아있는 성을 결부시켜서 성기에 새긴 상징적인 토속신은 들어가면 죽인다는 들어오면 죽는다는 성적인 애로성과 인간의 삶과 죽음의 깊은 뜻까지도 시사될 거같이 많은 메시지가 내포되어 보여 상당히 심오하다<sup>31)</sup>.

이렇게 문신은 사회심리구조상 젊은 연령층에서 패션 군을 먼저 이루며 젊은 여성들이 팔뚝이나 앞가슴 혹은 아랫배(배꼽 밑)에 장미꽃이나 나비를 문신(文身)한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물론 개중엔 문신 대응 스티커를 붙인 경우도 있는데 문신이 과거 몇몇치 못한 경력을 가진 일부 남성의 전유물(專有物)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다. 이제 문신이 스포츠·연예계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뜻하며, 또한 전신을 문신으로 휘감은 외국 여성이라던가. 서구에서의 문신은 우리나라와 달리 부정적 인식이 이미 덜하여 패션적인 요소로 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예계에서 문신을 한 스타들도 많았다. 구준엽(클론), 샤프(그룹), 이재훈(가수), 이상민(블라 멤버), 홍록기(개그맨), 이주노(서태지

멤버), DJ DOC(가수)등으로 안젤리나 졸리(영화 '툼 레이더'의 여주인공), 테니스 로드맨(전 NBA 시카고 볼스 선수·영화배우), 클라우스 마이네(그룹 '스컬피온'의 보컬)등 이들은 문신을 일반인에게 보급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가수 이 정현이 한창 '와', '바뀌'를 잇따라 히트 시킬 때 헤나를 하고 나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sup>32)</sup>도 한 좋은 예였다.

## 2. TATTOO LOOK

현대 서양복식에서 문신의 다양한 응용은 오로지 몸에 시술한 것만이 아닌 소재위에 문양화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거나, 또는 문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재로 복식패션에 일조를 할 디자인 기타 제반 기능적요소를 TATTOO LOOK이라 일컫는다. 인류의 역사와 궤(軌)를 같이한 문신은 원초적인 자기표현의 본능을 상징하듯, 서구에서는 피어싱(piercing·뚫기), 보디 페인팅(body painting), 헤나(henna·살갓 염색)와 함께 신체 예술(body art)로 분류되어, 서구에서는 이들의 경연대회 또는 문신엑스포등이 열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 TATTOO LOOK을 창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 8>

포스터<sup>33)</sup> <그림 8>은 1950년대에 미국에서 테네시 윌리엄스의 소설 '장미 문신(The Rose tattoo)'이 영화로 만들어져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는데 문신이 얼마나 대중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sup>34)</sup>.

현대복식에 나타난 패션문신으로서 의복이나 몸에 간단한 문양으로 어깨, 가슴, 유방 또는 중요한 국부 등에 패션룩으로서 쓰인 TATTOO와 의상에 직접 TATTOO문양을 도입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 1) 신체에 표현된 TATTOO

신체에 직접 표현한 문신은 스트리트 스타일의 한 양식으로 스킨헤드의 문신이나 레이스리스의 모호성을 나타내는 표현뿐 아니라 한 패션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요소로 응용되었다<sup>35)</sup>.



<그림 9>  
bookmoda#41. p.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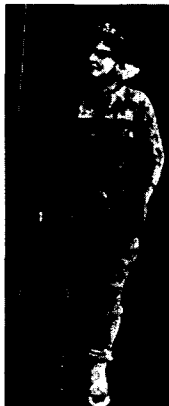
<그림 10>  
bookmoda#41. p.178

<그림 9>는 패션모드사진으로 유색인종에게 했던 채색위주의 문신을 응용하였다.

또는 헤나 디자인을 응용한 것으로서 문양은 트라이벌스타일로 훨씬 현대적감각을 지닌 느낌의 자료들도 많았다. <그림 10>은 에스닉풍으로서 인디언, 스페인, 차이나풍의 스타일을 가미한 의상에 팔뚝과 다리에 또는 얼굴과 어깨에 패션문신이 곁들여 있어 패션룩에 문신이 장식의 하나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의상과 함께 완성된 하나의 패션작품임을 느끼게 한다.

때문에 TATTOO의 문양은 패션 트렌드라던가 또는 콘셉에 맞추어 여러 방향으로 개발 및 변이될 수 있다고 보며 방법과 아이디어 면에서도 응용점이 많다. 이미 TATTOO FASHION 이라 하여

독자적으로 문신 그 자체만을 현대 코디네이션 개념으로써 의상과는 별개로 즐기는 부류들이 늘고 있고, 신체의 각 부위 어느 곳도 장식가능하다는 매력이 문신애호가들의 증가요인으로 꼽고 있다. 신체에 하는 문신이 굳이 과거 어떤 신앙, 주술 등에 연관된 개념적 행위였음에 비해, 현재는 단순한 패션, 또는 전위적 행위에 치중되는 문신이 많아 개념적인 요소란 그 디자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이다. 이렇게 패션적인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는 문신은 패션뿐만 아니라 사진 또는 작품분야로부터 의료기술분야까지도 접목되어 부가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재활용아트 분야가 개발여하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본다. 신체에 단순한 패턴을 구사하는 문신에서 나아가, 신체구조의 일부분을 재생하는 디자인으로서의 문신도 하나의 큰 패션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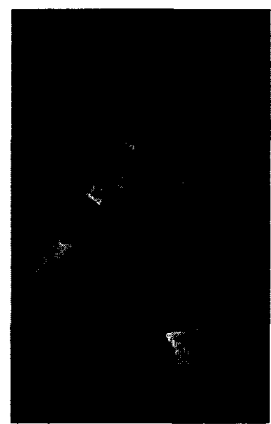
<그림 11> illustre. p.168 <그림 12> bookmoda#41. p.208

<그림 11>은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전신의 첨단 패션룩이라고 할 수 있는 문신사진으로 단순한 하나의 장식적인 요소로써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체에 무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복으로써 현대인의 일상패션과 문신의 세계를 결부시켜 생각할 수 있는 시발 점이었다. 또한 <그림 12>는 현대의 작은 spot tattoo style로 등, 팔뚝, 어깨부위에 작은 꽃문양 등을 새겨 의상과 함께 조화되어 작품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기타 이밖에도 패션브랜드의 로고를 모델의 이마나 가슴 등에 그리고 문신

처럼 새긴 사진도 있었으며 그러한 사례가 전부 FASHION TATTOO LOOK 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문신이 패션으로 대두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즉 섹스어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적격함과 영구성이 아닌 일회성으로도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자유로운 개성표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지닌다는 것에 있다<sup>36)</sup>. 일단 시술을 하게 되면 영구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부정적이고 독립적인 요소로 취급되었던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기의 스트리트패션의 하나로써 현대복식에서 비중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으며, 반영구문신의 기법과 개발된 색염료로 인해 선풍적인 인기를 가진 패션으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 2) 의복에 표현된 TATTOO

현대 서양복식에서 문신의 다양한 응용은 몸에 직접시술을 하는 것만이 아닌 소재위에 문양 화되어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신의 문양에서 따온 느낌이 강한것이라던가, 또는 <그림 13>처럼 문신을 할 때 많이 쓰는 소재인 해골 및 몸뼈를 문양으로 응용함으로써 신축성이 뛰어난 옷감위에 그려 넣어 착장했을 때 직접 몸에 문신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유도하였다.



<그림 13> DSsmagazine. 표지 <그림 14> bookmoda#41. p.484

<그림 14>는 씨쓰루의상에 트라이벌 문양 및 마오리족의 문양을 느끼게 해주는 문양을 프린트

해서 귀족적이고 민속적인 풍을 내포시킨 매력을 발산하며 이러한 패션작품들을 TATTOO LOOK 이라고 할 수 있다.

### 3. TATTOO의 내적의미

막연한 한때의 호기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려는 어떤 감정이 내포된 패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의 하위패션문화는 소위 문신에서도 저항패션으로 일컬어져 왔다. 문신이 내포하고 있는 사조중 자해심리와 저항패션을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을 밑바닥으로 한때, 특정집단의 정체성 내지는 사회적인 신분을 표시하는 한 수단을 넘어<sup>37)</sup> 사회공동체에 보내는 죄악과 탈선을 향한 경고의 의미내지는 비뚤어진 권위에 도전한 저항정신의 상징으로서 청소년의 문신으로 흔히 나타났다.

첫째, 자해심리에 관한 연구로서, 문신은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흥미 있는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단순한 장식 의미 외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문신행위는 그 자체가 불건전성의 반영일수 있었다. 자해연령이 청년기가 대부분으로 특징적인 동기로서는 영웅심, 남성다움, 과시해 보이려는 의도, 호기심, 멋으로라는 등 동기가 있는데 이것은 문신이 동일시의 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갖는다는 의미도 준다. 자아 동일시뿐 아니라 집단 동일시로서도 문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문신을 새겨준 작성자중 친구가 가장 많았던 사실도 이를 말해주고 있고 역시 문신이 집단행위로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38)</sup>.

또한 젊은이들이 사랑, 우정등 내적욕구와 내적 갈등의 주된 주제를 시사하기 위하여 문신이 중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흔히 보이는 우정을 주제로 한 문신은 자아 동일성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될 수 있으며 그룹로얄티의 강조일수도 있다<sup>39)</sup>. 그리고 인내와 노력을 의미하는 문신 등은 그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입장에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상위지향성을 암시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소속된 사회집단이나 그 관습에서의 일탈에 대한 심

리적 갈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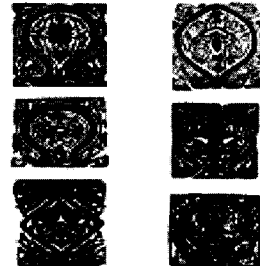
<그림 15> la peinture du corps. p.235

둘째로, 저항패션에 관한 의미로 전후 영국사회에서 대두된 하위문화그룹중 펑크족의 출현은 70년대 말 실업의 증가로 과격하고 도전적인 젊은이들의 반항심리와 욕구불만을 표출하는데 좋은 돌파구였다. 20세기 스트리트패션으로서 그이미지가 두드러졌던 <그림 15>의 스킨헤드 족들은 하위문화그룹인 트라이벌의 멤버를 시각적으로 인식시키고자 기존의 미의식을 배제한 독특한 페인팅, 복장등을 하고 다녔다. 그들은 과격한 패션을 즐기며 여자남자 구별 없이 짧게 깎은 머리에 닥터마틴부츠, 체크무늬셔츠, 블루종스타일의 재킷을 착용하고 여자들 역시 몽키 부츠, 스트라이프 버튼다운셔츠, 서스펜더에 헐렁한 카디건을 입었다. 앞과 뒷부분을 짧게 커트한 머리에 화장은 얇은 베이스에 가는 눈썹과 짙은 샤도우<sup>40)</sup>와 문신등 하위문화였던 저항패션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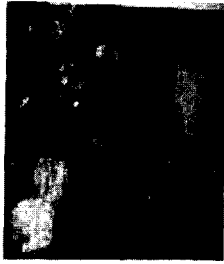
#### 1) 미술화와 TATTOO문양



<그림 16> l'accomplissement



<그림 17> tribal tattoo design. p.124



<그림 18> la mariee



<그림 21> vogue #25. p.234

위의 <그림 16, 17>은 Gustav Klimt의 그림이며 가운데 <그림 17>은 인도네시아일대의 민족들이 즐겼던 문양이었다. 각 나라 및 지역에 따라 조금씩 개성적인 문양이 많지만 특별히 흡사한 느낌을 주는 미술화와 TATTOO 문양의 대조됨을 보여준다. 화가로서 특별한 색깔을 갖고 있는 Gustav Klimt의 그림에는 흡사하게 문신의 문양 같은 것이 많다. 아직 배경이라던가. 그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해보진 못했지만, 두 가지의 그림에서 상당히 재밌는 느낌을 준다.

2) 헤나와 부위별 TATTOO의 시대패션



<그림 19>  
www.kcyacademy.com




<그림 20> la peinture  
du corp. p.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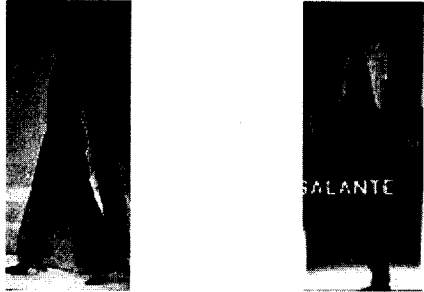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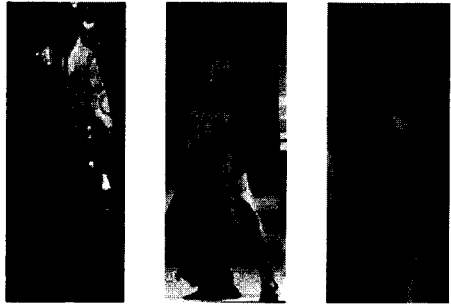
위의 <그림 19>는 헤나염료를 사용하여 손, 발, 목 부위 등에 검은색 및 천연염료로 채색하는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성행했던 일시적인 헤나문신으로서 현대적인 감각의 문양으로 마치 액세서리를 걸친 것 같은 느낌인데 비해, <그림 20, 21>은 핑크족들의 스트리트 패션으로 머리는 양옆을 짧게 밀고 가운데는 닭벼슬형으로 남기거나 땅고 눈 주변의 아이라인은 검고 짙은 강한느낌의 영구문신을 하는 것이 대조적이다. 스킨헤드 족들은 정수리를 중심으로 방사형의 문양을 문신하고 알록달록 채색하였으며, 다시 뒤이어 현대적인 스트리트 패션으로 도래한 것이 헤나문신으로 분석된다.

3) 기타 콜렉션과 TATTOO패션의 비교분석

이와 같이 문신의 내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가 많으며, 문신구조 및 문양의 형태와 지역분포에 따른 구별 및 분석도 패션과 관련된 좋은 연구과제일 듯하여 차후 더 깊이 다루어보고자 한다.

<표 5> TATTOO와 패션

	형태별 TATTOO	분석
20세기 초	 <p>&lt;그림 22&gt; illustre. p.169</p>	<p>1920년경 무희들의 전신 문신으로 거의 2년7개월 정도 걸린 작품. 장식성의 가치가 높은 패션의 수준으로 신발까지 발부위에 디자인을 하여 보디페인팅의 느낌까지 들게 한다.</p>

	형태별 TATTOO	분석
20세기 말	 <p data-bbox="312 750 904 779">&lt;그림 23&gt; book moda#41. p.491 &lt;그림 24&gt; book moda#41. p.21</p>	<p data-bbox="922 562 1343 683">문신형태가 가장 섬세한 마오리족의 문양을 연상시키는 텍스타일. 이태리 F.SARLI의 폴리네시안 콘셉. 문화배경상 문신의 문양이 반영된 텍스타일 디자인.</p>
	 <p data-bbox="317 1097 900 1126">&lt;그림 25&gt; bookmoda#41. p.185 &lt;그림 26&gt; l'official no.30. p.80</p>	<p data-bbox="922 898 1343 1019">Thierry Mugler와 Maurizio Galante의 작품. 성적매력이 강한 글래머러스풍. 부분적으로 팔과 다리에 문신풀의 느낌을 재현하거나 문신 문양이 디자인된 스타킹 착용.</p>
21세기 초	 <p data-bbox="331 1426 884 1456">&lt;그림 27&gt; elle#75. p.205 &lt;그림 28&gt; l'official no.848. p.212</p>	<p data-bbox="922 1234 1343 1355">J.P.Gaultier 작품. 등에 문신타일의 알파벳이 간결미가 돋보임. 단순한 문신처리기법과 보디페인팅의 접목으로 로맨틱풍과 섹시함의 조화가 이채롭다.</p>
	 <p data-bbox="437 1785 775 1812">&lt;그림 29&gt; book moda#41. p.184(좌)</p> <p data-bbox="437 1821 775 1848">&lt;그림 30&gt; book moda#41. p.185(중)</p> <p data-bbox="437 1856 775 1883">&lt;그림 31&gt; l'official no.30. p.80(우)</p>	<p data-bbox="922 1583 1343 1771">Thierry Mugler와 Balmain의 작품. 공통점은 가면 같은 분위기와 다리에 재현된 문신문양. 정교하게 디자인된 레이스문양을 얼굴에 부착하거나 얼굴 또는 이마주변에 문신타일 재현. 가면스타일이 패션쇼에서 문신의 문양으로 접목됨. 섹시함과 로맨틱.</p>

## IV. 결 론

위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따뚜의 패션성에 대한 과정은 상당히 방대하고 연구할 자료가 많았다. 문신이란 것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체에 행해지는 문화행위였으며, 문신의 동기나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조금씩 그 모양새를 달리하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문신의 목적은 중세 및 근대에 들어 죄수 및 범법자의 낙인으로도 사용하여 부정적인 안목도 있었고, 폭력 및 범죄 집단그룹의 일원이거나 어떤 위협의 목적으로 과시되어오기도 하였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 미용장식설과 색정적 의미로서 사용되어 왔으며<sup>41)</sup> 사춘기를 전후한 성인이 되는 시초에 용기와 전시효과, 반항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저항패션으로도 작용하였으며 근래에 들어 패션 계에도 문신이 많이 인용되는 추세에 이르렀다. 화장 또는 패션복식분야에서 몸이나 의복에 문신의 문양을 많이 도입시키는 등 문신이란 장르는 거의 밀접한 동기로서 작용되었다. 이에 문신은 단순한 화장개념의 협의적의미의 분장이 아닌 반드시 패션과 아트는 건지에서 다루어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TATTOO의 패션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패션과 관련된 근거코드를 만들어 앞으로의 각종 논지들이 현대보디아트 및 패션아트에 접목되어 활성화 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히고 TATTOO관련 패션코드가 보다 긍정적인 예술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현대의 물질만능 문명에 의해 사장되어가는 정신문화를 일깨워 줄 수 있는 TATTOO의 예술성이 패션에 미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 연구하고 나아가, 쉽고 대중적인 TATTOO 패션문화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문신은 개성이다. 메이크업이 탈착 가능한 의복이라고 한다면, 문신은 그것이 불가능한 의복이란 점에서 일단 영구문신을 한다면 그렇게 문신한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원하기에 따라 평생 제거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기에 매력이 발

생한다고 할 수 있다. 변신을 함으로써 자신의 몰랐던 매력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이며 하나의 고정된 자기 자신은 아니지만, 다면성을 지닌, 내면은 그러나 똑같은 자기 자신임을 확고히 하는 패션이 변신이다<sup>42)</sup>.

둘째로, 문신은 패션이다. 세계 각국의 문신교류가 시작되고 있어 문신에 의한 변신이라는 새로운 신체장식이 싹트고 있음에 따라, 개성위주의 패션으로서 한몫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TATTOO가 갖는 패션성은 그 영역이 복식문화와 같이 공존하면서 패션 성을 떨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였다.

셋째로, 문신의 대중화이다. 자기충족욕구와 독특한 개성표현이 알맞게 응용된 TATTOO LOOK은 최근 세계도처에서 쉽게 전할 수가 있으며 스트리트패션으로서 대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43)</sup>. 때문에 디자인아트분야에서 TATTOO FASHION을 재활용할 수 있는 소스는 창안능력에 따라 개발의 여지가 상당히 많았다.

넷째로, 문신은 타락된 예술이 아니다. 특히 전위적인 예술방법의 하나로서 국적불명의 요소들이 뒤섞여 나타나는 세기말적 표현이라도 할 수 있었다. 문신이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추하고 나쁜 것을 상징하는 징표도 되었었지만 단지 피부와 육체에 대한 작인일 뿐만 아니라, 정신과 두뇌피질에 새겨진 각인이며 상처인 이 행위예술을 뒤집어 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 때문에 앞으로도 문신에 대한 각 방면의 문제점을 연구, 보충 해결해 나간다면 문신이 지니고 있는 개성과 감각과 감정이라는 요소에 대한 무한한 패션성은 개발여하에 따라 재활용될 수 있는 분야도 넓고, 차후 더 많은 연구과제가 되어 각광받을 미래 산업으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 참고문헌

- 1) 박영수(1997). 마음은 인체의 어디에 담겨있을까. 을유문화사, p.228
- 2) 마릴린혼, 루이스 구렐저(1994). 의복: 제2의 피부. 5



- 관, p.37
- 3) 박영수. 앞의책. p.226
  - 4) 문형진(2000). 문신의 풍습과 그 유래. 한국외대국제 지역연구, 제4권4호, p.167
  - 5) 박영수. 앞의책. p.227
  - 6) Victoria Ebin, 임숙자(1988). 신체장식. 경춘사, p.83
  - 7) 황춘섭외(1995). 마오리족 전통복식과 문신고찰. 복식 문화연구, 95. 12, p.257
  - 8) 문국진(2000). 문신을 통해보는 에로스와 타나토스6, 녹십자의보, 28권 6호, p.389
  - 9) 박영수. 앞의책. p.6
  - 10) 문형진. 앞의책. p.179
  - 11) 박영수. 앞의책. p.228
  - 12) 박영수. 위의책. p.233
  - 13) 김진곤(2002). 소년수용자 문신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법무부 교정, 제46권 제3호, p.75
  - 14) 양순재외(1986). 문신 및 그 제거술에 관한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33, p.506
  - 15) 이효진(1999). 현대서양복식에 나타난 TATTOO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9.8, pp.550-566
  - 16) 박홍삼(1999).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자해행동과 성격특성간 관계: 문신, 자상, 담뱃불 상흔을 중심으로.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 17) 박영수. 앞의책. p.240
  - 18) 김진곤. 앞의책. p.76
  - 19) 양순재외. 앞의책. p.506
  - 20) 이미경외(1990). 영구화장문신에 의한 알레르기성 욕아중1예. 이화의대지, 13호, p.261
  - 21) 김진우외(1986). 문신의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제24권, p.216
  - 22) 양순재외. 앞의책. p.500, p.507
  - 23) 양순재외. 위의책. p.508
  - 24) 강호경외(1996). 문신제거에 사용한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의 효과. 대한피부과학회지, 10월호, p.792
  - 25) 김진외(1997). 한국인의 문신과 피부색소병변에 대한 큐스위치드루비레이저의 치료효과. 대한성형외과학회지, 97. 3, p.434
  - 26) 양순재외. 앞의책. pp.507-508
  - 27) 장세훈외(1987). 문신치료의 실험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87. 1, p.15
  - 28) 장세훈외. 위의책. p.15
  - 29) 김진외. 앞의책. p.434
  - 30) 김종주(1979). 문신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8호, p.402
  - 31) 문국진(2000). 문신을 통해보는 에로스와 타나토스 6. 녹십자의보, 12월호, pp.388-390
  - 32) 트렌드. "문신으로 한번 튀어보자" <http://weekly.chosun.com/news/html/200108/>  
200108070025.html  
(조성관 주간조선 기자 maple@chosun.com)  
2001.08.09 /1665호
  - 33) <http://www.liu.edu/cwis/cwp/library/sc/posters/web/Album73.html>
  - 34) 트렌드. "문신으로 한번 튀어보자" 앞의 사이트 <http://weekly.chosun.com/news/html/200108/200108070025.html>  
(조성관 주간조선 기자 maple@chosun.com)  
2001.08.09 /1665호
  - 35) 이효진. 앞의책. p.565
  - 36) 이효진. 위의책. p.559
  - 37) 강성열(2001).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신분표시: 저항 패션의 한 가능성. 신학이해21, 5월호, p.24
  - 38) 김종주. 앞의책. p.403
  - 39) 김종주. 위의책. p.402
  - 40) 이효진. 앞의책. p.564
  - 41) 양순재외. 앞의책. p.500
  - 42) 히로모무라사와(2002). 치장과 변신을 위한 화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권 1호, p.9
  - 43) 이효진. 앞의책, p.565